

고은 불교 대하소설

그들의 하루하루

산꼭대기 밑의 움막과 산중허리의 암자, 그 밑의 암자를 내려오면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큰 방이 있는 갈대암자들로 이곳의 정사(精舍)들이 배치된 터였다.

우녀와 합두가 거처하는 곳은 아래에서 첫번째 암자이므로 자연스럽게 남성 수행자들에게 보호되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 거기에서도 파도소리는 크게 들렸다.

바람이 거세게 부는 날의 파도소리 때문에 눈 앞에 있는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해도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원(水中怨魂)의 어떤 저주(呪呪)조차도 그런 파도소리 가운데서는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겠다고 민화가 깔렸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니승(尼僧)들의 거처보다 더 내려와 있는 갈대암자는 아예 사람들을 귀머거리로 만들기 십상이었다. 바로 인담과 수원 수행들이 거처하는 곳이며 10명 전원이 모이는 특별정진이나 대중공사(公事)와 법회가 있을 때에만 저 위쪽에서 내려와 함께 모이는 곳이 그렇다.

과연 이곳에서 인담은 오래동안 파도소리 속의 인담이었던 것이다. 그는 혼자였으므로 누구의 말을 들을 까닭이 없고 누구에게 말할 까닭이 없었다.

어쩌다가 한 마디 독백이 입 밖으로 나오면 나오자마자 파도소리가 커다란 악어의 입이 모기 한 마리를 삼키는 것처럼 삼켜 버리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떤 소리의 독립도 용납하지 않는 항상 성난 파도소

欲攝居佛處
語動動靜止

이 노래를 들은 인담이 깜짝 놀란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인담은 그녀를 더이상 건들어 보지 않았다. 그 노래를 어디서 들었느냐고 묻지 않았던 것이다.

저 6세기 중반의 부대사(佛大士)의 계승이 아니던가. 부대사는 부음(佛音), 그가 24세일 때 인도 승려 승두타(嵩頭陀)를 만난 이래 쌍도수(雙樹) 사이에 암자를 지어 아내 묘광(妙光)과 함께 수행을



23

한 재가선(在家禪)의 대가였다.

한때 그는 단식본신(斷食冥身)의 서원을 세웠다가 제자들의 만류로 그만두어야 했는데 그대신 제자 19명이 대신 몸을 태웠다 한다.

바로 이같은 부대사의 계승이 전혀 연

의 사연을 문득 내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아름다운 합두의 그 눈부신 얼굴을 칭찬 하다가 그런 적도 있었다.

"합두스님은 정령 바다위에 떠오른 연꽃 한 송이입니다. 그런데 그 연꽃은 시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들기 전에 불구덩이에 던져 태워도 좋습니다... 내 몸도 태워 없애고자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합두는 우녀 앞에서 꿈쩍도 할 수 없게 절대적인 괴물체가 되는 것이다. 그런 괴물체 말고는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막다른 진공상태가 바로 아름다움만으로는 어떤 정신의 역량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가.

아름다움이란, 한갓 아름다운 얼굴의



그림 · 조향숙

“밤마다 밤마다 부처를 안고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 우녀의 입에선 부대사의 계승이 흘러나오고...

리도 그것에 익숙해지면 파도만이 눈 앞에 보일 뿐 끝내 그 파도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파도소리로부터 초월한 상태가 그것이었다. 그때부터 저쪽에서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는 귀의 힘이 살아나는 것이다.

인담이 실성한 우녀를 데려왔을 때 그녀가 이 섬의 첫날밤에 격렬하게 울부짖던 때보다도 차라리 그 발작이 가라앉은 뒤의 그녀가 고즈넉히 중얼거리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까닭이었던지 모른다. 그때 그녀의 떨리는 입에서 나온 것이 있었다.

밤마다 밤마다 부처를 안고 자고 아침마다 부처와 함께 일어난다 부처 있는 곳 알고자 하건대 말 하고 말 없고 가고 싶은 곳 살펴 보아라

(夜夜抱佛眠 朝朝隨佛起)

관아 없는 뒷날의 우녀 입에서 흘러나온 것이 인담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밤마다 밤마다... 아침마다...” 우녀의 입에서 나온 이것은 며칠 전의 합두에게도 한 말이거나 도대체 어떤 공통된 경지로 우녀가 부대사의 그것을 이어받았던 말인가.

인담의 머리 속에 어떤 차디찬 칼끝이 스치는 것 같은 생각이 있었다. 그것은 우녀의 어느 전생(前世)이 바로 부대사의 아내 묘광이었거나 아니면 부대사 자신이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전생이란 무엇인가. 금생(今生)만으로 턱없이 부족한 시간을 과거의 세계로 연장시킨 것이 아닌가. 그런 전생이 실지로 있었다면 바로 거기에 우녀의 전생도 없지 않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 일로 인담이 김종무 즉 불이 임종의 후신이라는 어떤 확신에 다가갈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우녀는 인담이 없는 자리에서도 부대사

다음에 드높이 벗어나는 저 아득한 허공계의 어떤 형상도 없는 진리의 힘이 깰듯 어 있다. 저분 마음을 저기압의 연기로 채우고 있는 먼 풍경처럼.

파도소리는 언제나 성난 것은 아니다. 어제까지, 마치 이 세상을 다 파묻어버릴 것 같은 파도소리, 언제까지라도 잠들 줄 모르며 이 세상을 아주 파묻어 버릴 것 같았던 파도소리가 바로 오늘 아침에는 아주 유순한 뒤척임 말고는 아무런 회로애나 감정도 없는 것처럼 그 본래의 수면(水面)으로 돌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때는 두 사람의 말소리도 훨씬 은밀해졌다. 합두의 말소리는 정령 그윽하였다. 과연 말소리에 숨겨진 것이 있어 있었다. 오전의 파선이 끝나자 바로 후원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밤 짓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좌선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짧다. 아니 밤 짓는 일로 좌선을 이어가는 것이다. 이런 합두의 후원 일에 우녀가 팔짱끼거나 혼자서만 방 안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도 한동안이 지나서 방을 나와 후원

의 일을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주 잘 정돈된 오후처럼 조용하였다.

거기에 인담이 방선(放線) 뒤 나타났다. “여기는 동(動)과 정(靜)이 하나입니다.”

“합두스님이 있는 곳이라...”라고 우녀가 합두를 내세웠다. “아닙니다”라고 합두가 어쩔 바를 모르고 몹시 당황하는 승결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합두에 대해서 우녀 역시 그녀의 좀더 국량이 큰 승결로 대하였다. “저도 아깝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분 다 무욕도의 보살입니다” “보살의 손에는 보살이 들려있고 보살의 발에는 보살의 신발이 신겨져 있겠지요. 우리 스님이야말로 보살이십니다”라고 우녀가 인담을 참다운 마음으로 찬탄하였다.

그때 인담이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말을 꺼냈다. “아무래도 수원스님이 시원합중입니다. 이번의 움막 정진에서 열(熱)이 위로 올라가 머리가 열증에 시달리며 열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법(行法)하게 큰 눈동자도 총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하러 좌선을 한다고 앉 아있겠 합니까?... 그 저 밤낮으로 잠이나 실컷 자게 내버려 둘 일 아닙니까?” “보안이 마다하는 모양입니다”

“만화승님이 나서서 생각을 돌려 놓을 일 아닙니까?” “만화승님 대신 불이승님이 나선 모양입니다”

“호오 뱃사공이 나설 일을 괜히 선비가 나섰습니다. 하기가 수원스님도 문자를 아는 쪽이지요”

섬의 기슭에 한척의 배가 닿았다. 어둠속의 사나이 서넛이 배에서 섬으로 내려섰다. “웬 햇불인가” “우리들 중의 누구인가” 그들은 둘러보며 확인했으나 아무도 빠져 나가지 않았다.

곧 사람들이 낮 밤시간에 내려왔다. 우녀가 슬쩍 수원쪽을 살펴보았다.

벌써 열꽃이 머리 전체에 번져 있었다. 두 눈도 가파르게 붉은 기운으로 차 있었다. 그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근엄한 불이 그 그런 수원을 늙은 어머니가 문 놓듯이 어린 아이를 지나치게 애지중지하는 것처럼 감싸고 있었다.

우녀가 한 마디를 파도소리에 던졌다. “수미산은 고사하고 철위산(鐵龜山) 둘레도 넘어갈 수 없는 노릇인가!”

그녀의 말 끝에는 먼 곳에서 일어난 일처럼 아무런 실감도 없는 한숨이 새어나왔다. 수미산은 우주의 종륜(圓輪)과 수륜(水輪) 금륜(金輪)의 엄청난 세계를 올라가서 철위산의 커다란 둘레를 채우고 있는 바다와 민물 그리고 그 물 사이의 여러

산들의 세계를 넘고 넘어서야 다다를 수 있다. 그렇진대 처음의 철위산 둘레도 넘을 수 없다면 아예 허공계의 한 미진(微塵)이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미립(微粒)의 분자(分子)이거나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우주의 원소(元素)인지도 모른다. 수원의 열병이 그런 지경으로 예정된 것을 뜻하는 것인가.

그날밤 꿈이 잘 맞은 인담의 새벽꿈 속에서 수원스님이 괴리를 붙여 두 다리와 허리에 구름자락을 달고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다.

“저런!”하고 그 구름 자락을 손으로 잡으려다 놓쳐버리는데서 꿈을 깼다. 마침 새벽 예불시간의 종을 남작이 어둠 속에서 치고 있었으므로 꿈을 깬 인담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로 그 시각이었다. 섬의 기슭에 한척의 배가 닿았다. 어둠속의 사나이 서넛이 배에서 섬으로 내려섰다. 아마도 섬의 내막을 알고 있었는지 별로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성큼성큼 갈대암자로 향하는 것이었다.

앞서 가는 사나이가 부딪음을 쳐서 불을 붙였다. 그것이 바로 햇불이 되었다. 어둠은 이미 그런 햇불이 아니더라도 조급씩 시계(視界)를 열기 시작하는 젊은 어둠으로 바뀌는 중이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는 발을 엮디디기에 충분한 어둠 속이었다. 거기에 난데없이 햇불 하나를 들이댄 것이었다. 당장 예불에 모여든 사람들의 눈에 그것이 알려질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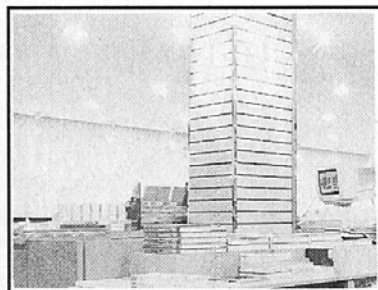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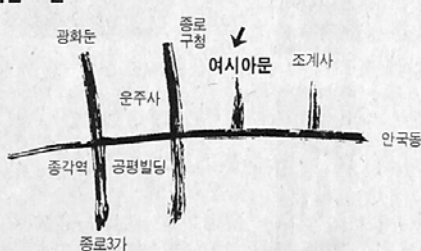
“웬 햇불인가?” “우리들 중의 누구인가?” 그들은 서로 둘러보며 그들중의 누군가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곳에서 빠져나가지 않았다. 인담이 민화에게 말하였다.

“저 햇불 쪽을 자세히 살펴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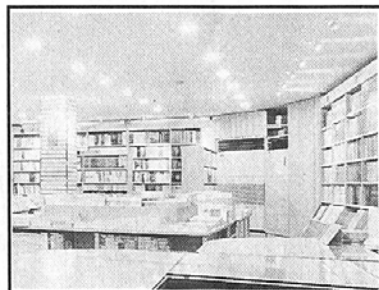
북은가,북 · 반향가,북

책방여시아문으로 오십시오

오시는 길



- 저자와의 만남(격월)
- 계절별(분기별) 책잔치 개최
- 통신판매-전화, 팩스 주문 가능
- 컴퓨터를 이용한 편리한 도서 검색



-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5천 여종, 3만 여권)
- 불교관련서적(역사, 철학, 사회과학 등 망라)
- 영인본, 희귀본, 절판본, 열람 가능
- 편리한 도서안내
- 편안한 독서 공간
- 도서상품권 취급



- 도서회원제 운영 (1995.4.1부터 시행 예정)
- 회원특전
 - 현대불교신문사, 도서출판 여시아문 발행도서에 대한 회원 우대 사은권 제공
 - 소식지를 통한 도서 정보 제공
 - 통신 주문
 - 전화 도서 목록 검색 서비스 (737-0695)
 - 책방 여시아문 · 현대불교신문사 주최 행사 우선 초대